

인류문화의 지속가능성을 무형 유산에 담다

2016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개막... 인간문화재 故 이매방 예술세계 특별 조명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술은 물론 그와 연계된 도구, 사물, 가공물, 문화 공간의 발자취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것은 인류문화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를 위한 실천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2016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를 개최한다.

오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리는 2016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는 국민의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반 국민에게 친숙한 영화상영을 중심으로 공연, 전시, 아카이브, 문화기술 등을 선보인다.

영화는 전 세계의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영화작품들을 소개하는 <디스커버리>, 무형유산과 관련된 지금 이 순간 꼭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스페셜>, 무형유산과 전통문화에 대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IFF 패밀리>으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에선 지난 2015년 작고한 인간문화재 故 이매방(승무 및 살풀이 춤 보유자)의 삶과 예술세계를 집중 조명한다. 무형유산원은 고인이 남긴 기록영상, 사진, 의상, 공연소품 등 아카이브 자료들을 소재로 영상에 세세히 그려 상영하며 '하늘이 내린 춤꾼'이라는 주제로 7인의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영상, 음향, 퍼포먼스를 결합한 '멀티미디어 라이브 퍼포먼스'를 통해 현대적 시각예술로 표현한다. 또 생전에 고인의 춤사위를 기록해둔 '동작캡처' 자료를 이용하여 고인을 3차원(3D) 캐릭터로 재현하고, 승무 이수자인 딸 이현주 씨와 함께 승무를 협연하는 '홀로그래프 공연'을 갖는다.

이와 함께 국립무형유산원 마당에서는 프랑스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베스트 노즈'가 초청 공연된다. 이는 프랑스 브르타뉴 지역에서 전승되어온 것으로, 노래나 악기 반주에 맞추어 집단으로 전통춤을 추는 공동체의 축제모임이다. 또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된 남원시와 협업을 통해 길놀이 '신관 사또부임행사', 창극 '광한루 연가' 세계 콘서트 '관소리 춘향' 등 다양한 볼거리를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 강경환 원장은 "무형유산 향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이번 축제는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살펴보아도 흔치 않은 의미 있는 행사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일반 국민의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무형유산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행사일정은 공식 누리집 iff.ih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9월 30일~ 10월 3일까지 열리는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포스터



'국악수백'을 주제로 한 이번 무대는 우리 전통문화를 이 시대에 맞게 전하는 것이 전통예술의 대중화·현대화라는 생각을 담아 21세기 풍류를 느낄 수 있는 실내악의 성찬으로 준비한다.

전북도립국악원 목요국악예술무대

전통 실내악 '국악수백' 공연

전북도립국악원의 2016 목요국악예술무대가 22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린다.

실내악의 날 '국악수백'을 주제로 한 이번 무대는 우리 전통문화를 이 시대에 맞게 전하는 것이 전통예술의 대중화·현대화라는 생각을 담아 21세기 풍류를 느낄 수 있는 실내악의 성찬으로 준비한다.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은 이경하고 고종수원 전통 실내악곡에서부터 색다른 조합의 국악기로 듣는 실내악 작품까지 신선하고 다채로운 6곡을 연주한다.

국악실내악으로 연주되는 양방언 작곡의 <Frontier Prince of Jeju> 공연을 시작으로 관현악 편성으로 재구성된 이준호 작곡의 <비상>, 북한 작곡가 최성환이 오케스트라를 위해 작곡한 '아리랑 환상곡'을 이인원 작곡가가 관현악곡(아리랑)으로 편곡해 들려준다.

또 정악곡 '천년만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지연 위촉 편곡 <도드리놀이>, 국악 앙상블 '놀이터' 앨범에 수록된 <Fly to the sky>, 작곡가 이경섭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선보인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예매는 홈페이지 <http://www.kukakwon.or.kr>를 통한 사전 예약제이다.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잔여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문의 280-6840. /정해은 기자

가람 이병기와 함께 문화도시로 도약

내일부터 24일까지 원광대 송산기념관에서 가람문학제 개최

'2016년 가람문학제'가 (재)익산문화재단(이사장 정현윤), 가람기념사업회, 가람시조문화회, 여산면, 익산문인협회, 원광대학교 대안문화연구소와 인문학연구소의 공동 주관과 익산시의 후원으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23일에는 '가람 이병기의 인생관과 학문관'을 주제로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남정희(성균관대 교수)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황재문(서울대 교수), 이수연(서울대 교수), 이민희(강원대 교수)의 발제가 이어지며, 정한기(전주교대 교수), 서광진(전북대 교수), 박경주(원광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불개날 24일에는 제36회 가람시조문학상 시상식 및 제8회 가람시조문학제가 여산면 가람 이병기 생가 수유재에서 오전 11시부터 진행된다.

1979년 제정되어 올해로 36번째를 맞는 /익산=정왕원기자

가람시조문학상은 시조단의 정평있는 문학상이다.

문학상 본상에는 양점숙 시인의 '풍경이 온다', 신인상에는 권영희 시인의 '그대 이름은 이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시상식에 이어 제8회 가람시조문학제가 열린다. 이날 박영우(경계대 교수)와 이택희(가람기념사업회) 부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전국가람시조백일장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장원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교육부장관상, 시조사인 등단의 자격이 주어진다.

정현윤 익산시장은 "이번 가람문학제를 통해 익산의 자람이자 시조문학의 큰 발자취를 남기신 가람 이병기 선생의 정신과 사상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여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이 되는 익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즈파크 빅밴드와 유열의 힐링콘서트

내일 오후 7시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재즈 공연

깊어가는 가을 밤! 우리를 힐링 해 줄 하모니가 23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가을의 향기를 뽐낼 담은 공연으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가수이자 재즈보컬로 변신한 유열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화려한 날은 가고', '사랑의 찬가'와 같은 자신의 곡을 재즈로 편곡하여 들려준다.

그리고 아름다운 재즈 보컬 김혜미가 감미롭고도 강렬한 목소리로 'Fly me to the moon', 'Yo Soy maria'를 재즈파크빅밴드와 함께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광고음악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재즈파크빅밴드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관중을 압도

하는 웅장한 사운드의 'Sing Sing Sing'과 한국인들에게 꾸준히 사랑 받고 있는 적 맨지오의 'Feel So Good', 'Children of Sanchez'를 라이브로 들려볼 수 있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주제곡 'Moon River'는 서정적인 멜로디를 색소폰의 솔로로 표현했다.

여기에 '복키' OST의 'Gonna fly now'와 같은 유명 영화의 테마곡들을 재즈파크빅밴드 멤버들의 재미난 퍼포먼스와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일상 속에 지친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고 짧지만 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콘서트' 개최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하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콘서트'가 24일 오후 2시 전주 중부발전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삶과 권익보호, 함께하면 더 즐거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날 콘서트에선 무형문화재 김해순씨의 설장구놀이와 전북무용협회 회원들의 현대무용, 그리고 중국인 광판씨의 변검술을 만나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족과 나눔사업연구회의 '여원' 회원들이 펼치는 감성 시 낭송회를 비롯해 행복코칭연구소장인 전만길씨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아주 특별한 문화특강도 이어진다.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의 이형구 대표는 "생활법률과 예술문화의 접목으로 다문화가족에게 기쁨을 주고 도민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어 생활의 활력을 찾게 하자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족을 위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이형구 010-3681-5516.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9월 22일>

▷쥐띠
46년생: 같은 화려하나 속은 비어있는 운세.
60년생: 일의 능률이 올라가는 운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72년생: 이성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게 되니 말과 행동에 주의.
8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바수가 따라온다.

▷소띠
49년생: 지나친 고집으로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일이 생긴다.
61년생: 여성은 남자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긴다.
73년생: 모든 일을 조심하고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때를 기다려라.
85년생: 한쪽의 일만 듣고 편 가르키 하는 실수를 범하기 쉬운 때.

▷호랑이띠
50년생: 짐작은 금물, 때로는 상황에 자신의 운을 맡겨보라.
62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
74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고 서로 답답하다.
86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투기나 투지는 불리하다.

▷토끼띠
51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운.
63년생: 남성은 여성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
75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운이니 어려움도 잘 넘어갈 것이다.
87년생: 동기끼리 함께 화합하는 일은 좋은 결실

▷용띠
52년생: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회를 놓치지 마라.
64년생: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되 혼자 움직이는 것이 좋다.
76년생: 자신보다 약자에게 선행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88년생: 뒷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운.

▷뱀띠
53년생: 다른 사람과의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
65년생: 앞으로 나아가기도 뒤로 물러서기도 못하는 운.
77년생: 순간의 감정으로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차분하게 생각.
89년생: 외면적으로는 화려한 듯 하나 내면적으로는 불안한 운.

▷말띠
54년생: 이성을 주의하지 않으면 구설에 휘말린다.
66년생: 금전적으로 손재수가 있으니 먼저 내보내라.
78년생: 문서를 주고 받는 일에는 아주 좋은 운이다.
90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

▷양띠
55년생: 상황에 대한 권태를 느낄 수 있는 운이다.
6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중간중간 악질이 생기는 운.
79년생: 뒷사람의 덕이 있는 운이니 혼자 고민하지 마라.
91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 힘든 일이 발생하는 운

▷원숭이띠
56년생: 금전적으로 막대한 상황이다.
68년생: 문서에 결실이 비추니 빨리 움직이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80년생: 급하게 결실을 맺으려고 하지 마라. 차근차근 진행하라.
92년생: 익숙했던 일이라도 실수를 범하라.

▷닭띠
57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니 원행은 삼가라.
69년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좋은 기회를 놓친다.
81년생: 무리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
93년생: 동기끼리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운이다.

▷개띠
48년생: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는 것이 좋겠다.
60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2년생: 무지한지 움직이면 결과를 얻는다.
84년생: 운전하는 사람은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운.

▷돼지띠
47년생: 시소한 욕심으로 큰 것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
59년생: 뒷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때, 덕으로 돌아올 것이다.
71년생: 이성과의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후년에는 다시 화합.
83년생: 초심을 잃지 마라. 막상 얻으면 마음이 변한다.